馮至詩의 抒情性 考察

- ≪十四行集≫(1942)을 중심으로 -

洪 京 兌*

<목 차>

1. 들어가며
2. 초기 詩作의 경향
3. 愛情詩를 통한 자기존재 인식
4. 생명의식으로의 轉化
5. 자연과의 呼應
6. 끝내며

1. 들어가며

흔히 시대로서의 '현대'는 급속한 변화와 그에 따른 수많은 갈등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며, 사람들은 그 변화의 속도와 갈등의 그물망 속에서 쉽게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한다. 이러한 정체성 상실의 시대가 철학적 의미로서의 '현대'라고 할 수 있다. 馮至 (필명, 名: 馮承植, 字: 君培, 1905-1993)가 태어나던 시기는 바로 중국이 근대에서 현대로 접어드는 시기였고, 그가 한창 문학활동을 시작하던 시기 역시 중국이 강대국들의 포위와 봉건경제의 해체로 인해 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갈등이 상충하던 시기였다. 馮至는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이러한 세계에 대해서 끊임없는 의문을 품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시 창작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였다.

魯迅에 의해 '중국에서 가장 걸출한 서정 시인'으로 칭송받은 이래로, 馮至는 중국의 대표적인 서정 시인으로 손꼽혀왔다.[1] 물론 馮至 본인은 抒情詩

* 慶南大 講師

1) 魯迅 ≪且介亭雜文二集・<中國新文學大系>小說二集序≫ (陳耀東, <論馮至的詩>, ≪二十年代

이외에 四首의 서사시[2]에도 능했으나, 그의 문학적 성취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단연 서정시였으므로, 그에 대한 논의는 절대 다수가 서정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3] 그래서 본인은 馮至의 서정시 가운데서 체현되는 생명추구와 존재의식 양상이 그의 체험적 예술관을 통해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를 초기의 시작 전개과정과 40년대 이후 그의 서정적 내함이 집중적으로 구현된 ≪十四行集≫을 중심으로 이해해 보고자 한다.

2. 초기 詩作의 경향

馮至의 시는 각 시기마다 두드러지는 특색이 있는데, 그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로 인생체험에 대한 객관화 및 그에 대한 깊은 반성을 통한 '동일성'의 추구를 들 수 있다.[4] 그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어떤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모습을 찾고자 노력하였는데, 그 분투의 과정은 곧 자기 존재의 참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자, 자기 동일성의 추구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그가 시의 세계에 들어온 목적은 그 자신 스스로 아직은 실체를 알 수 없는

中國各流派詩人論≫,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 169쪽, 참고)

2) 1927년 4월, 『昨日的歌』를 출판하였는데, 이는 馮至 최초의 시집으로서 1926년 여름 이전까지 그의 대학 시절의 시를 모아 놓은 것으로, 모두 서정시 48수, 서사시 4수가 수록되었다. 서정시의 층차는 다양하였지만 조잡하고 유치한 느낌의 시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의 서사시는 王瑤등에 의해 '독보적'인 작품들로 평가되었다. (王瑤, ≪中國新文學史稿≫, 上海文藝出版社, 1985年, 79쪽 참고)

3) 陳耀東, <論馮至的詩>, ≪二十年代中國各流派詩人論≫,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 189쪽 참고.)

4) 김준오는 ≪詩論≫, (서울: 삼지원, 1991)에서 모든 시의 원리를 동일성의 원리로 해석한다. 동일성은 철학과 사회심리학 등에서 인간의 '자기 정체성'과 같은 말로 쓰이기도 하는데, 김준오는 현대와 현대인의 특징인 변화와 갈등에 대해여 '변하지 않는 것'과 '일체감'은 하나의 이상과 가치의 세계가 될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의 '동일성(identity)'을 현대시의 원리를 규정할 수 있다고 한다. 그는 또한 동일성의 감각은 시적 세계관뿐만 아니라 언어, 리듬, 이미지 등 시의 요소 속에 작용하는 종합적인 원리가 될 수 있다고 보며, 馮至의 시가 가지는 일관성은 이러한 '동일성의 원리' 에 잘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세계와의 만남에서 겪게 되는 새로운 체험들을 확인하고 싶은 강한 충동에 의해서였고, 그러한 그의 충동은 생활의 '체험'[5]속에서 '존재'에 대한 독특한 인식으로 연결되었다.

한 예로서 馮至가 시작의 초기에 쓴 <녹색 옷을 입은 사람 綠衣人> (1921) 이라는 시는 이러한 시도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다.

一個綠衣郵夫,	녹색 옷의 우체부
低着頭兒走路,	고개를 숙인 채 길을 걷다가
也有時看看路旁.	때로 길가를 쳐다본다
他的面貌很平常,	그의 얼굴은 평범하고,
大半安于他的生活,	생활엔 대체로 만족하는지.
不帶着一悲傷.	한 점 상심의 기색도 없다.
誰也不注意他	아무도
日日的來來往往.	매일 오가는 그를 눈여겨보지 않는다.
但是在這瘡痍滿目的時代,	그러나, 이 참혹한 재난의 시대에,
他手裏拿着多少不幸的消息	그의 손안엔 얼만큼의 불행한 소식이 얼마나 있을까.
當他正在敲人家的門時,	그가 어느 집의 대문을 두드릴 때에
誰又留神或想,	누군가 또 눈여겨 보고 생각하겠지.
"這家人可怕的時候到了!"	"저 집사람에게 끔찍한 때가 왔다!"는 것을.[6]

<녹색 옷을 입은 사람 綠衣人>

보통 사람에게는 아주 사소한 일일 수도 있는 작은 사건에서 그는 그를 둘러싼 시대환경, 즉, 조국의 운명에 대해 강한 체험을 하였고, 이를 통해 인상적인 한편의 시로 만들어 내었다. 비록 시의 표면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시적 자아는 위기의식을 갖고 조국과 자신의 운명을 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그는 아직 혼란의 본질을 꿰뚫어 볼 만한 인식의 수준은 획득하

5) 김현은, "그러나 시에 쓰인 체험은 '생활'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체험은 '존재에 가깝다."라고 말한다. 즉 체험에 깊은 고뇌가 통해 있을 때, 그 체험은 존재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 된다고 보았다. (김현, ≪시인을 찾아서≫, 문학과 지성사, 1991, 452쪽.)

6) <綠衣人>全文, ≪馮至詩選≫, (成都: 四川人民出版社, 1980), 3쪽.

지 못하여, 조국의 현실이 '참혹한 재난'과 '불행한 소식'으로 가득 찼다는 것만을 파악할 뿐 그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그의 이런 나름대로의 사회비판은 거의 직관에 가까운 것으로, 이 직관은 시인으로서의 자질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더 이상 새로운 비전은 제시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는<녹색 옷을 입은 사람 綠衣人>에서 체험의 객관화와 반성 그리고 그를 통한 자기 동일성 추구의 일면을 희미하게나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3. 愛情詩를 통한 자기존재 인식

馮至는 이후 많은 애정시들을 통해 자신의 인생체험을 보여주게 되는데, 특히 ≪어제의 노래 昨日的歌≫ (1927)와 ≪북쪽으로의 여행, 기타 北遊及其他≫ (1929) 두 시집을 통해서 '사랑에 대한 강렬한 열망'과 '현실사회에 대한 고뇌'를 표현하면서 진정한 자기 존재에 가까워지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수정해갔다.

我是一條小河	난 한줄기 작은 강
我無心從你身邊流過,	내 무심히 네 곁을 흐르면,
你無心把你彩霞般的影兒	당신은 무심히 그대의 저녁놀 같은 그림자를
投入了河水的柔波.	당신의 부드러운 물결로 드리운다.

강물에 무심히 비친 그림자와의 조우,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사랑은 이렇게 '무심히' 하지만 운명적으로 만나서 서로의 모습을 비춘다.

我流過一座森林,	내가 숲을 지나면,
柔波便蕩蕩地,	부드러운 물결은 출렁이며,
把那些碧綠的葉影兒,	저 초록 잎새 그림자를,

裁剪成你的衣裳, 재단하여 그대의 옷을 짓는다.
我流過一片花叢, 난 꽃섶을 흐르면,
柔波使粼粼地 부드러운 물결은 반짝이며
把那些彩色的花影兒, 그 화사한 빛의 꽃그림자를
編織成你的花冠 엮어 그대의 화관을 만든다.

서로를 비추며 흘러가는 강물과 그림자는 숲과 꽃섶을 거치면서 그 세상의 광채를 서로 공유하고 한동안 기쁨에 젖는다. 강물과 그림자, 나와 너는 극도의 일체감을 맛보게 되니, 이것은 바로 자아와 세계의 일체가 되는 것과 다름이 없다.

最後我終于, 마지막에 나는 마침내,
流入無情的大海, 무정한 대해로 흘러가고,
海上的風又厲, 浪又狂, 바다 위의 바람은 거세게, 또한 광폭하게,
吹折了花冠, 擊碎了衣裳! 불어와 화관을 망가뜨리고,
부딪쳐와 옷을 찢는다!

我也隨着海潮漂瀁, 나도 바닷물결따라 넘쳐 출렁이며,
漂瀁到無邊的地方 : 끝없는 곳으로 흘러만 간다 :
你那彩霞般的影兒 당신의 저녁놀 같은 그림자도
也和幻散了的彩霞一樣! 덧없이 흩어진 노을만 같구나![7]
<난 한 줄기 작은 강 我是一條小河>

위의 시에서 노래하는 사랑은 자연스럽게 사랑을 느끼며 만나 서로를 거울처럼 비추고, 세상의 길을 지나면서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4연과 5연에는 현실과 세월의 격랑에 의해 그 사랑이 부서지고 만다는 비극적 인식이 명백히 깔려 있다. 시인이 바라는 완전한 사랑이 결코 쉽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즉 시인의 내면 속에서 자아와 세계는 쉽게 화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랑의 추구와 그 바탕에 깔려 있는 비극적인 자기인

7) <我是一條小河>全文, ≪馮至詩選≫, (成都; 四川人民出版社, 1980), 17-18쪽.

식은 ≪어제의 노래 昨日的歌≫에 보이는 馮至의 애정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이루게 된다.

사실 사랑에 대한 열렬한 갈망은 시인의 유년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馮至가 9세때 그의 친어머니가 죽고, 17세때 계모마저 세상을 떠나자, 그의 마음은 상심으로 가득 찼다. 이후 그는 고향과 가족을 떠나 오래도록 타향에서 공부하는 동안 고독의 습관이 몸에 배게 되었다. 이 고독은 유년시절의 어두운 경험과 결합하여 자기만의 세계를 형성하고 자신을 타인과 격리시키게 된다. 타인과의 소통이 쉽지 않았다는 것은 초기 시인<不能容忍了>(1921)에 역력히 드러난다.

我不能容忍了,	용서할 수 없다
我把我的胸懷剖開,	나의 가슴을 갈라 열고,
取出血紅的心兒,	핏빛 심장을 꺼내 들어,
捧着它到了人叢處.	군중 속으로 가서 높이 받쳐들었다.
有的含着譏誚走遠了,	어떤 이는 조롱하며 멀리 가 버리고,
有的含着畏惧走遠了,	어떤 이는 무서워하며 멀어졌다.
只剩下一個人,	나 혼자만 남게 되자,
我只得也緩緩地走去.	하는 수 없이 나도 서서히 떠나간다
到了十幾處,	여러 곳을 가 보았지만,
十幾處都是如此.	모두 똑같다.
抱着心兒暫時休息着,	심장을 안고서 잠시 쉬고 있으려니,
人們又在那邊聚集着—	사람들이 다시 저쪽 편에 모여들었다.[8]

<용서 할 수 없다 我不能容忍了>

심장은 여기서 시인의 진실, 속마음을 보여주고, 가슴을 갈라 그것을 꺼내 드는 행위는 진실의 숨김없는 폭로로 이해된다. 속마음을 남김없이 드러내자 사람들은 조롱하거나 무서워하며 그를 떠난다. 그러나 그가 다시 그 속마음을

8) <不能容忍了>, ≪馮至詩選≫, (成都: 四川人民出版社, 1980), 4쪽.

가슴에 묻어두자 사람들은 그제야 안심한 듯 그에게로 다가온다. 대화가 불가능한 세계에서 참다운 인간관계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9] 또한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시의 내용이 허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가슴을 갈라 심장을 꺼내들고 시원하다는 듯이 걸어다니는 행위는 허구적인 것이지만, 이러한 상상적 체험은 현실에서의 실제적 체험이 마치 꿈속에서와 같은 형태로 변형되었는데, 이와 같은 상상적 체험을 통한 존재에 대한 인식은 馮至 초기시의 한 전형을 이루었다.

4. 생명의식으로의 轉化

馮至의 이와 같이 계속되는 존재의식의 발현에 대한 노력은 이후 1940년대 ≪十四行集≫에서 더욱 심화된 모습으로 표현된다. ≪十四行集≫은 일상과 초월의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는 작품집으로도 볼 수 있다. 즉 20년대 시들이 일상생활 속에서의 내, 외적 갈등을 발생으로 인한 인생의 의의, 인간 가치, 인간존재를 탐구하는 과정이었다면, 41년을 전후로 쓰여진 ≪十四行集≫의 시들은 소재나 풍격면에서부터 많은 변화를 보여준 것이다. ≪十四行集≫이 발표된 이후,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고 이후에도 계속 중국 현대주의 시의 한 정점으로 높이 평가받았는데, 馮至의 ≪十四行集≫에는 10여년동안의 삶을 거치는 동안 그의 내면에 축적된 수 많은 현실적, 문학적 체험들과 그 당시 馮至가 처해 있던 昆明의 현실이 만나면서 시인에게 일어난 모종의 각성이 함유되어 있으며, 동시에 1920년대의 낭만적 풍격과는 확연히 거리를 보였다.

그는 일상생활의 경계와 평범한 자연 가운데서의 느낌과 명상, 그리고 외부 사물과의 뜻하지 않은 만남에서 종종 깨달음을 얻었으며, 때로는 죽음과

9) 황미리 ≪馮至 시의 개성≫, 釜山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7. 21쪽 참고.

삶에 대한, 또한 생의 완성으로서의 죽음에 관해 노래하기도 하였다.

我們準備着深深地領受	우리는 깊이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
那些意想不到的奇蹟,	그 예기치 못할 기적들,
在漫長的歲月裏忽然有	기나긴 세월 속엔 홀연히
彗星的出現, 狂風乍起.	나타나는 혜성과 광풍의 몰아침.
我們的生命在這一瞬間,	우리들의 생명은 그 한 순간에,
彷彿在第一次的擁抱裏	첫 포옹 속에서
過去的悲歡忽然在眼前	홀연 과거의 悲歡이 눈앞에서
凝結成屹然不動的形體.	응결되어 우뚝 움직이지 않는 형체가 되는 듯.
我們讚頌那些小昆蟲,	우리들이 찬송하는 저들 작은 곤충,
它們經過了一次交媾	그것들은 한 차례 교미를 하거나
或是抵御了一次危險,	한 차례 위험에 저항하다가,
便結束它們微妙的一生.	곧 그들의 미묘한 일생을 끝맺는다.
我們整個的生命在承受	우리의 모든 생명은
狂風乍起, 彗星的出現.	갑작스레 일어난 광풍의 출현을 받아들인다.[10]

<1. 我們準備着>

모든 통과의례, 혹은 입문의례가 그렇듯이 한쪽은 시원을 알 수 없는 어둠이고, 다른 한쪽은 더 없이 밝은 광명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다. 어둠의 세계는 모진 시련과 혼돈과 죽음의 세계이며, 광명의 세계는 새로운 탄생과 축복과 부활의 세계이다. 알을 깨고 나와야만 새가 비상할 수 있듯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 한 마리의 작은 곤충이 죽는다. 하지만 이 죽음은 생명의 영속을 위한 것으로, 죽음은 곧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의미하거나 영원한 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시인이 깊이 인식하는 것은, 바로 이들 미물이 죽

10) 第1首, ≪馮至詩選≫, (成都: 四川人民出版社, 1980), 101-102쪽.

음의 순간에 획득하는 것과 같은 존재의 의미이다. 그것은 비록 혜성의 출현처럼 짧지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狂風이 몰아치듯이 비할 수 없는 강도와 힘을 가진 기적에 다름 아니었다. 그 기적의 순간에 生과 死의 한계는 이미 존재하지 않고, 生과 死가 똑같이 장엄하고 신성하며, 한데 뒤섞여 있다.[11] 여기에서 죽음은 삶의 훼멸이 아니라, 생의 의의, 생의 완성, 신생의 기초, 영생의 근원이 된 것이다.[12]

이처럼 ≪十四行集≫은 1920년대에 반복되던 몇 가지 정서와 체험과는 질적인 면에서 크게 다르다. 물론<북방여행>에서도 제7장에서, '삶과 죽음의 비밀'에 대하여 말했지만,[13] 그 때는 비밀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40년대의 馮至는 20년대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다. 아마도 이는 30년대 독일 유학등 10년 동안의 경험의 누적, 그리고 昆明에서의 변화된 생활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인데, 이전의 시들보다는 더욱 사회적 문제에 눈을 돌리는 것 역시 변화의 또 다른 양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夜半的北京的長街,	한 밤중 북경의 도로,
狂風伴着你盡力地呼應:	광풍에 휩싸인 너는 힘껏 소리친다:
"晚報! 晚報! 晚報!"	"석간이요! 석간! 석간!"
但是沒有一家把門開—	그러나 어느 집도 문을 열지 않는다.
同時我的心也叫出來,	동시에 내 마음도 절규한다,
"愛! 愛! 愛!"	"사랑! 사랑! 사랑!"
我們是同樣地悲哀,	우리는 똑같이 슬프고,
我們在同樣荒凉的軌道.	우리는 똑같이 황량한 선로 위에 섰다.
"晚報! 晚報! 晚報!"	"석간이요! 석간! 석간!"
但是沒有一家把門開—	어느 집도 문을 열지 않는다.

11) 陶鎔<論馮至 ≪十四行詩≫>, ≪中國現代文學研究≫, 73쪽, 1990, 第11期. 참고.
12) 陶鎔 <論馮至"十四行詩">,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1990, 1期, 73쪽 참고.
13) …삶과 죽음, 그것은 똑같이 비밀스러운 것, / 하나의 비밀의 고리가 그것들을 함께 묶었다 : / 나는 그 비밀의 고리 가운데, / 풀려해도 풀 수 없고, 도망가려 해도 도망갈 수 없다.… 生和死, 是同樣地秘密, / 一個秘密的環把它們套在一起; / 我在這秘密的環中, / 解在解不開, 跑也跑不出去. (<北遊>7. 中秋 가운데)

人影而閃閃地落塵埃.
"愛! 愛! 愛!"

卷卷地在你的懷.
風越冷, 越要緊緊地抱
"晚報! 晚報! 晚報!"
但是沒有一家把門開---
團團地在我的懷.
"愛! 愛! 愛!"
<"晚報" -- 贈賣報童子>

사람 그림자 번쩍 먼지 위에 떨어진다.
"사랑이요! 사랑! 사랑!"

한 묶음씩 네 품에.
바람이 찰수록 더욱 꼭 껴안는다.
"석간이요! 석간! 석간!"
그러나 어느 집도 문을 열지 않는다 ---
한 덩이씩 내 품에 있다.
"사랑이요! 사랑! 사랑!"[14]

이 시의 구성은 독특하게 신문팔이 소년의 신문 파는 소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1연에서부터 시인의 시각은 신문팔이 소년의 행적을 따라 움직인다. 북경의 황량한 밤거리, 게다가 광풍이 불어 거리의 인적도 끊긴지 오래이다. 소년은 목청을 돋우며 신문을 사라고 외치지만, 그 어느 집도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 이처럼 '밤, 광풍, 닫힌 문' 이라는 상징어는 소년과 사람 사이의 단절을 더욱 조장하고 있다. 2연에서 타자에게 소외감을 느끼는 소년과 시적 화자로 파악되는 '나'는 우리가 되어 함께 슬픔의 정서, 고독의 정서를 가지게 된다.

3연에서는 슬픔의 정서, 고독의 정서가 극대화된 소년의 모습과 시적 화자의 모습이 구체화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 시는 이른바 소외된 자의 정서를 통해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신문팔이 소년은 현실 속에서 고통받고 억압받는 피지배층으로 사회의 모든 요소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인물을 상징하고, 북경의 거리는 몰인정하고 비인도적인 현실을 대표하는 대상으로 상정된다. 시인은 잃어버린 인간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갈등한다. 한밤중의 북경의 도로, 광풍 속의 소년, 닫혀 있는 문, 황량한 선로, 먼지 위로 떨어진 사람 그림자 등이 황량한 북경의 거리를 더욱 메마르게 해주고 있다.[15] 이 메마름은 곧 시인과 동일한 정서로 시인은 갈등을 해소시켜 줄 사랑을 갈

14) ≪馮至詩選≫, 四天人民出版社, 1980, 54쪽.
15) 안영은, ≪馮至 시 연구 : 철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외대 석사논문, 1998, 100쪽 참고.

망한다. 소년의 "석간이요! 석간! 석간!"이란 외침이 시적 화자에게서는 "사랑이요! 사랑! 사랑!"으로 들렸을 것이다.

변화무쌍한 전쟁기에 馮至는 늘 옛날의 나를 버리고 새로운 나를 맞이하고 싶어했다. '우리는 깊이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도 역시 이러한 연장선상에서의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 과거의 '나'가 대상과의 갈등 속에 침잠해 있다면 지금의 나는 갈등을 극복하고 초월하는 나로의 시작을 알리는 - 신호로 파악할 수 있다.16)

여기에서 다루어지는 죽음은 20년대 갈등의 고조로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자살식의 죽음이 아닌 생명의 찬란한 완성으로서, 더 나은 삶을 위한 과정으로서 다뤄지고 있음이 지극히 철학적이다.

이른바 생명과 생명의 관계 - 교류 - 에 대한 모색으로 제시되는 상징이 '길'이다. ≪十四行集≫의 많은 시들에서 馮至는 길에 대해 천착하고 있다. 길은 때로 '인생'을 상징하기도 하고, '희망'의 이미지로 상징되기도 한다. 馮至의 경우에는 그의 체험에 힘입어 길의 의미가 더욱 풍부해지고 있다. 예로 제7수에서는 전시의 昆明을 하나의 정경으로 묘사하였다.

和暖的陽光內	따스한 햇볕 아래
我們來到郊外.	우리는 교외로 갔다.
象不同的河水	서로 다른 강물이 모여
融成一片大海.	큰 바다를 이루듯
有同樣的警醒	같은 각성이
在我們的心頭.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고
是同樣的運命	같은 운명이
在我們的肩頭.	우리들의 어깨에 있다.
要愛惜這個警醒	이 각성을 소중히 하려면
要愛惜這個運命	이 운명을 소중히 하려면

16) 안영은, 위의 논문, 100쪽 참고.

不要到危險過去. 위험에 다가가지 마라

那些分岐的街衢 그 갈림길이
又把我們吸回 또 우리를 끌어당기고
海水成分河水. 바닷물은 강물로 갈라진다.[17]
<7. 我們來到郊外>

공습경보가 울리면 성의 사람들은 모두 교외로 숨어들고, 이들은 그 때 자신의 '독특함'을 잃는다. 교외로 모여드는 사람들의 행렬은 강물의 줄기와 같이 모여들어 한 운명으로 바다로 합쳐진다. 그리고 자아를 상실한다. 그러나 공습경보가 해제되면, 바닷물은 다시 강물로 나뉘어져, 사람들은 다시 개성화되어, 나뉘어진 '길'을 따라 제자리로 돌아간다. 여기서 '길'은 전쟁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독특한 형태에 대한 '상징'의 형식으로 제시된다.[18]

제7수에서 馮至는 내심 공습해제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 각성을 소중히 하려면, 이 운명을 소중히 하려면, 위험에 다가가지 마라'라고 한 것은,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나마 우리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고,[19] 하나가 된 그 기분이 소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따스한 햇볕 아래, 우리는 교외로 갔다'고 하면서, 마치 소풍을 온 듯한 기분을 만끽하고 있다. 이는 시인의 체험 속에서 우러난 독특한 정서가 교류에의 희망과 연결되어 나타났기 때문이다.

≪十四行集≫에는 또한 '시를 위한 시'들이 있다. 1920년대에도 <무화과>(1926), <我只能>(1926), 등에서 시를 쓰다는 것에 대한 고뇌와 어려움의 토로 등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1940년대 ≪十四行集≫시기로 들어오면서 시에 대한 시인의 생각은 정리되고 집중되어 표현된다. 그 가운데 제15수는 대표적인 것으로, '무엇이 우리의 실재인가?'라고 물은 시인은, 다시 제26수에서 '마치 새로운 섬이 하늘가에 출현하듯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물은

17) ≪馮至詩選≫, 107쪽 참고.
18) 황미리 ≪馮至 시의 개성≫, 釜山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7, 46쪽 참고.
19) 解志熙, <生命的沈思與存在的決斷 -- 論馮至的創作與存在主義關係>, <外國文學評論> 1990年 第3-4期, 北京, 81쪽 참고.

우리에게 새로운 발견을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성취와 허무, 발전과 한계, 有와 無, 현상과 본질이라는 동일한 인식의 서로 다른 표현, 즉 없지만 보여지는 무지개라든지 있지만 보여지지 않는 공기 같은 것을 14행의 시로써 표현하고 있다.

看這一隊隊的馱馬	저 짐 실은 말들을 보라
馱來了遠方的貨物,	먼 곳의 화물을 싣고 왔다.
水也會衝來一些泥沙	물도 흙모래를 휩쓸어 오리다.
從些不知名的遠處,	이름 모를 먼 곳에서.
風從千萬里外也會	바람은 천만리 밖에서도
掠來些他鄉的歎息:	타향의 탄식을 가로채 오리다.
我們走過無數的山水,	우리는 무수한 風景 속을 걸었다,
隨時占有, 隨時又放棄,	마음대로 차지했다, 마음대로 또 던져 버리고
彷佛鳥飛翔在空中,	마치 새가 공중을 날면서
它隨時都管領太空,	아무 때나 우주를 관할하다가도
隨時都感到一無所有.	수시로 아무 것도 없음을 느끼는 것처럼.
什麽是我們的實在?	무엇이 우리의 實在인가?
我們從遠方把什麽帶來?	우리는 먼 곳에서 무엇을 가져왔는가?
從面前又把什麽帶走?	눈앞에서 무엇을 가져가는가?[20]

<15. 看這一隊隊的馱馬>

이 작품에서 시인은 말이 짐을 실어 나르고, 물이 먼 곳에서 흙모래를 휩쓸어 오고, 바람이 천만리 밖에서 타향의 탄식을 가져오는 일상적인 현상 속에서 자신의 實在를 체험하고 있다. 호응관계로 이어져 오던 질서는 '우리는 무수한 풍경 속을 걸었다'와 같은 돌연한 詩語의 끌어들임에 의해 변화를 맞게 되고, 이것은 다음 단계의 깊이 있는 사고를 준비하게 한다. '짐을 실어 오

20) ≪馮至詩選≫, 115-116쪽.

고', '흙모래를 휩쓸어 오고', '탄식을 가로채 오는' 말, 물, 바람의 眞相을 파악한 시인은 '우리는 먼 곳에서 무엇을 가져오고 무엇을 눈앞에서 가져가는가?'란 의문 속에서 인간의 참된 모습을 찾아간다.[21] 즉 그가 생각하는 인생에 대한 인식은 개개인이 체험하는 瞬間으로 이루어지며, 매 瞬間은 '극복하고 견지하면서' 때로는 상실하기도 하고 다시 얻는다고 생각하였다[22]. 제21수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상을 엿볼 수가 있는데, 시인은 광풍과 폭우가 몰아치는 밤에 본능적으로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고독함과 생명존재에 대한 당혹감이 어두운 밤에서 느끼는 인간의 實在에 대한 고민으로 연결된다.

我們聽着狂風裏的暴雨,	우리는 광풍 속의 폭우를 들으며,
我們在燈光下這樣孤單,	우리는 등불 아래 이렇게 쓸쓸하다,
我們在這小小的茅屋裏	우리는 이 작고 작은 초가집 안에서
就是和我們用具的中間	바로 우리가 쓰는 도구를 사이에 두고
也有了千里萬里的距離 :	또 천리만리의 거리를 두고 있다,
銅爐在向往深山的鎭苗,	놋화로는 깊은 산의 광맥을 그리워하고,
瓷壺在向往江邊的陶泥,	자기 항아리는 강변의 진흙의 그리워하며,
它們都象風雨中的飛鳥	그것들은 모두 비바람 속에 나는 새처럼
各自東西. 我們緊緊抱住,	각자 떨어져 있다. 우리는 꼭 껴안는다,
好象自身也都不能自主.	자신조차도 스스로 어쩔 수 없다는 듯이.
狂風把 - 切都吹入高空,	광풍은 모든 것을 공중으로 날아올리고,
暴雨把一切又淋入泥土,	폭우는 모든 것을 진흙 속으로 빠뜨린다,
只剩下這點微弱的燈紅	간신히 남은 이 미약한 붉은 등불
在證實我們生命的暫住.	우리 생명의 잠시 머무름을 증명한다.[23]

---

21) 許霆·魯德俊, <「尋思, 尋形, 尋言」論馮至『十四行集』的追求>, ≪中國現當代文學研究≫, 1994년 제8기.

22) 馮金紅, <體驗的藝術>,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作家出版社, 1999. 3期, 187쪽. 참고.

23) ≪馮至詩選≫, 121쪽.

광풍과 폭우가 몰아칠수록, 즉 실존에 대한 고뇌가 커질수록, 사물들은 원래 있었던 제자리를 찾아가고 싶어한다. 즉 고뇌의 근원을 그리워하게 된다.[24] 그러나 남은 것은 희미한 등불아래서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무기력함과 우리 생명이 잠시 이 세상에 머무르고 있음을 몸서리치게 절감할 뿐이다.[25]

제23수에서 이러한 그의 심정은 더욱 확실하게 드러난다. 즉 밤의 개 짖는 소리에서 광명을 보여주면서, 세상을 따뜻하고도 긍정적으로 보는 시인의 눈이 빛나고 있는 것이다.

接連落了半月的雨, 연달아 보름동안 비가 내렸다.
你們自從降生以來, 너희는 태어난 이래로,
就只知道潮濕陰鬱. 습기찬 음울함만을 알았을 것이다.
一天雨雲忽然散開, 하루는 비구름이 홀연히 개이더니,

太陽光照滿了墻壁, 태양빛이 담장벽에 가득히 비추었고,
我看見你們的母親 나는 보았다 너희의 어미가
把你們銜到陽光裏, 너희를 볕에 물고 와서,
讓你們用你們全身 너희들 온 몸에

第一次領受光和暖, 난생 처음 빛과 온기를 맛이하게 하고는,
日落了, 又銜你們回去. 날이 저물 무렵, 다시 너희들을 물고 돌아가는 것을.
你們不會有記憶, 너희들은 기억할 수 없겠지,

但是這一次的經驗 그러나 이 한차례 경험은 반드시
會融入將來的吠聲, 미래의 울음소리 속으로 녹아 들어가,
你們在深夜吠出光明. 너희들은 깊은 밤에도 광명을 토해 낼 것이다.[26]
<23. 幾只初生的小狗>

---

24) 陶嬉<論馮至 ≪十四行詩≫>, ≪中國現代文學研究≫, 76쪽, 1990, 第11期. 참고.
25) 황미리 ≪馮至 시의 개성≫, 釜山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7, 44쪽 참고.
26) ≪馮至詩選≫, 123쪽.

온갖 시련을 거쳐 삶의 끝에 도달한 존재가 죽음이라는 삶의 완성 단계를 거쳐 새로운 삶을 맞이하였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갓 태어난 강아지에게도 오랜 비로 인한 갖가지 시련이 계속되지만 이는 '햇볕을 쬐는' 경험을 더욱 더 값지게 만들어 주는 가치 있는 시련일 것이다.

하지만 때로 馮至는 ≪十四行集≫중의 매 순간 체험 가운데 개체 존재를 파악할 수는 없는 것에 비관하기도 하였다. ; "什麽是我們的實在? / 我們從遠方把什麽帶來? / 從面前又把什麽帶走? 무엇이 우리의 實在인가? / 우리는 먼 곳에서 무엇을 가져왔는가? / 눈앞에서 무엇을 가져가는가? (15首 中에서)" 馮至에게 있어 '實在'는 생명의 영원이자 진실이며, 시인은 바로 이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고 근심하였던 것이다.

5. 자연과의 呼應

이 시기 馮至는 인간과 인간의 존재에 대한 깊은 사고 이외에도 자연에 대한 구체적 호응에도 관심을 보였다. 즉 자연과의 상호 연관과 호응관계를 관찰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일련의 작업을 시도한 것이다.

我們站立在高高的山巓	우리는 높디높은 산꼭대기에 우뚝 서
化身爲一望無邊的遠景,	드넓게 펼쳐진 먼 경치가 되고,
化成面前的廣漠的平原,	눈앞에 아득하게 놓여진 평원이 되며,
化成平原上交錯的蹊徑.	평원 위에 교차하는 오솔길이 된다.
哪條路, 哪道水, 沒有關聯,	어느 길, 어느 강이 이어지지 않겠으며
哪陳風, 哪片雲, 沒有呼應 :	어느 바람, 어느 구름이 답하지 않겠는가:
我們走過的城市, 山川,	우리가 거닐던 도시, 산천
都化成了我們的生命.	모두가 우리의 생명이 된다.
我們的生長, 我們的憂愁	우리의 生長, 우리의 憂愁는

是某某山坡的一棵松樹,　　어느 산비탈에 자라난 한 그루 소나무,
是某某城上的一片濃霧,　　어느 성곽 위에 가득 핀 짙은 안개:

我們隨着風吹, 隨着水流,　　우리는 바람 부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化成平原上交錯的蹊徑.　　평원 위에 교차하는 오솔길이 되고,
化成蹊徑上行人的生命.　　오솔길 위 행인의 생명이 된다.27)
<16. 我們站立在高高的山巔>

이 작품에서, 시인은 만물의 상호 연관과 호응관계로 이루어진 우주를 체현한다. 즉 모순과 비동일성의 실존을 넘어서 우주 생명의 본질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먼 경치'를 보았을 때, '우리'는 또한 '먼 경치'의 한 부분으로 자리한다. 이 우주 속에는 '길과 강이 이어지고', 여기에 '바람과 구름이 이에 답하면서', 일체가 상호 연결되고 호응한다. 공간과 시간의 경계는 없어지고, 생명이 만물과 더불어 끊임없이 변화됨 속에서 우리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28)

馮至는 여기에서 자연을 해석하고 그 대상을 교감하여 그로부터 삶의 통찰을 획득하는 위치에 서 있다. 여기에서의 자연은 단지 시각적으로 파악된 자연이 아닌 인간의 삶을 성찰하는 자세로서 파악된다. 이는 주관적 서정의 세계 속에 용해된 나무나 꽃이나 구름으로서의 자연이 아니라 지적이고 정신적인 내면 공간에 부각된 자연을 의미한다. 馮至는 자연으로부터 자신을 포함한 인간의 위치를 파악하고 스스로의 위상을 확인한다.29)

이어지는 시에서는 인간은 '망각의 과거를, 그리고 희미한 미래를 품고 있는' 존재로 자리잡는다.

我們有時度過一個親密的夜.　　언젠가 우리, 친밀한 밤을 보내기로 했다.
在一間生疎族房裏, 它白晝時　　어느 낯선 집에서, 한낮에 그 집이

27) ≪馮至詩選≫, 116-117쪽.
28) 王邵軍 <生命在沈思>-馮至, ≪中國現代作家傳記叢書≫, 135쪽.
29) 안영은 ≪馮至 시 연구 : 철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韓國外大 碩士學位論文, 1998. 89쪽 참고.

是什麼模樣, 我們都無從認識.　　어떤 모양이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했다.
更不必說它的過去未來. 原野—　　그 집의 과거와 미래는 더욱 더 그러했다.
　　벌판이 —

一望無邊地在我們窓外展開,　　끝도 없이 창밖에 누워 있고,
我們只依稀地記得在黃昏時　　다만 우리는 황혼 무렵에
來的道路, 便算是對它的認識.　　왔던 길을 희미하게 기억할 뿐이었다.
　　그것이 바로 그 집에 대해 아는 것
　　전부다.
明天走後, 我們也不再回來.　　내일이 가버린후, 우리도 다신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閉上眼吧! 讓那些親密的夜　　눈을 감아라! 그 친밀한 밤이
和生疏的地方織在我們心裏:　　낯선 곳과 함께 우리 맘속에
　　뒤엉킬 수 있도록
我們的生命象那窓外的原野,　　우리의 생명은 저 창밖의 들판,

我們在朦朧的原野上認出來　　우리는 몽롱한 들판에서
一棵樹, 一閃湖光, 它一望無際　　한 그루 나무, 반짝이는 호수의 빛을
　　보았다: 그것은
藏着忘却的過去, 隱約的將來.　　망각의 과거를, 희미한 미래를 끝없이
　　품고 있었다.[30]

<18. 我們有時度過一個親密的夜>

이 시에서의 馮至의 사유는 1연과 2연에서 보여지듯 과거와 현재가 서로 연결되고, 3연과 4연에서 나타나듯 끊임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 깊이 있는 사색을 끌어넣고 있다. '우리의 생명은 저 창밖의 벌판'은 인간과 자연의 일체를 나타내 주는 詩句로서 생명이 곧 창밖의 벌판이고, 그 벌판이 과거와 미래를 끝없이 품고 있기에, 우리의 생명도 망각의 과거와 회미한 미래를 품고 있게 될 것임을 인식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인간의 생명을 눈에 보여질 수 있는 창

30) ≪馮至詩選≫, 118-119쪽.

밖의 벌판으로 그려 넣고 있음에, 시인의 작품 속에서 시간의 유동성은 조각처럼 응고된 顯示性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겠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원이란 우리의 유한한 생명 밖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곁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31)

즉 시간과 공간이 나눠질 수 없는 것처럼, 현상과 본질이라는 면도 서로 나누어지지 않고 상호 작용한다. 여기서, 馮至의 사유 속에는 서양 철학적 개념으로서의 현상과 본질 사이의 대립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에게 있어 형상과 본질은 서로 다른 양상을 의미할 따름이다.32)

我常常想到人的人生,	인생을 생각할 때마다,
便不由得要你祈禱.	절로 너에게 기도하게 된다.
你一叢白茸茸的小草	흰색의 털 송송한 너, 한 떨기 작은 풀
不曾辜負了一個名稱:	이름을 저버리지 않았다 :
但你躲避着一切名稱,	하지만, 너는 모든 이름을 숨기고
過一個渺小的生活,	보잘 것 없는 삶을 살며,
不辜負高貴和潔白,	고귀와 결백을 저버리지 않고
默默地成就你的死生.	묵묵히 네 삶과 죽음을 이룬다.
一切的形容, 一切喧囂	일체의 형용과 일체의 소란함이
到你身邊, 有的就凋落,	네 곁으로 와 시들어 떨어지기도 하고,
有的化成了你的靜默:	너의 침묵이 되기도 한다:
這是你偉大的驕慢	너의 위대한 오만은
却在你的否定裏完成.	너의 부정 속에서 완성된다.

31) 汪劍釗<在中國現代主義詩歌的轉折點上 - 馮至>,≪中國現當代文學研究≫, 1995. 11기 참고.

32) ≪周易≫에서는 세계를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순환하는 역동적 실체라고 여긴다. 그 변화의 역동력으로 상정된 것이, 음·양이라는 대립적 힘이며, 그 순환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설정한 것은 '나아감이 곧 돌아감이라는 구조'이다. 여기에서, 중국인의 사유 속에는 서양 철학적 개념으로서의 현상과 본질 사이의 대립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현상과 본질은 동일한 것의 서로 다른 차원, 다른 양상을 의미할 따름이다. (심재상 著, ≪노장적 시각에서 본 보들레르의 시세계≫, 살림, 1995. 40쪽.)

我向你祈禱, 爲了人生. 나는 너에게 기도한다, 너의 인생을 위하여[33)]
<4. 에델바이스 鼠曲草>

鼠曲草는 에델바이스의 다른 이름으로서, 이 시에서는 貴白草로 불린다. 이것은 드러난 모습으로서의 에델바이스가 '흰색 털 송송한 한 떨기 작은 풀'에 불과하지만 본질로서의 에델바이스는 '貴白草'라는 이름에 걸맞는 '고귀와 결백을 저 버리지 않는' 아름다운 꽃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시적 자아는 대상으로서의 에델바이스와 융합을 통하여 본질적 숭고함을 지키고자 하였고, 더 나아가 본질적 숭고함을 지닌 자연이 현상과의 심리적 갈등을 빚지 않음을 본받고자 하였다.

我們天天走着一條熟路	나는 말마다 친숙한 길을 걸어
回到我們居住的地方:	우리가 사는 곳으로 돌아온다:
但是在這林裏面還隱藏	그러나 이 숲속엔 아직도
許多小路, 又深邃, 又生疎.	수많은 오솔길이 숨어 있다, 깊고도, 낯선.
走一條生的, 便有些心慌,	낯선 길을 걷게 되면, 곧 당황하게 된다,
怕越走越遠, 走入迷道.	갈수록 멀어져 감이,
	길을 잘못 들까 두렵지만
但不知不覺從樹疎處	어느새 나무 성긴 곳으로
忽然望見我們的地方.	홀연 우리가 사는 곳이 바라보인다.
象座新的島嶼呈在天邊,	새로운 섬이 하늘가에 드러나 듯,
我們的身邊有多少事物	우리 곁의 많은 사물들이
向我們要求的發現:	우리들에게 새로운 발견을 요구한다:
不要覺得一切都已熟悉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到死時撫摸自己的發膚.	죽을 때 자신의 머리카락과
	살갗을 만져 보면

33) ≪馮至詩選≫, 104-105쪽.

生了疑問: 這是誰的身體? 의문이 생기니:
이것이 누구의 몸인가?[34]

<26. 我們天天走着一條熟路>

시인은 또한 우리의 생활을, 집으로 이어지는 익숙한 길과 숲속에 묻혀 있는 낯선 길로 나눠놓고 있다. 이것은 곧 상식적인 것과 비상식적인 것, 의식적인 것과 잠재적인 것, 혹은 상상적인 것과 본원적인 것의 나눔과 다름이 없다[35]. 시인은 인생의 길목에서 새로움(제2연에서 보여지는 낯선 길을 헤매다 문득 익숙한 곳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의 그 곳에 대한 새로움)의 표면 아래 잠재된 것들에 대한 새로운 소식들 (제4연에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 이면에 잠재된 자신의 존재에 대한 모호함) 속에서 진지한 응시를 해나가길 원하고 있는 것이다.[36]

什麽能從我們身上脫落, 우리 몸에서 떨쳐 낼 수 있는 모든 것을
我們都讓它化作塵埃 : 티끌로 만든다 :
我們安排我們在這時代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를 둔다
象秋日的樹木, 一棵棵. 가을날의 나무처럼, 한 그루 한 그루씩.

把樹葉和些過遲的花朵 나뭇잎과 철 지난 꽃송이를
都交給秋風, 好舒開樹身 모두 가을 바람에 건네주고,
나무 줄기를 쭉 펴고
伸入嚴冬: 我們安排我們 찬 겨울로 뻗어 든다 : 우리는 우리를
在自然裏, 象脫化的蟬蛾 자연 속에 둔다, 허물 벗은 매미처럼

把殘殼都弄在泥裏土裏: 허물을 모두 흙속에 떨쳐 둔다:
我們把我們安排給那個 우리는 우리를 그
未來的死亡, 象一段歌曲 다가올 죽음에 둔다, 한 가락 노래처럼,

---

34) ≪馮至詩選≫, 126-127쪽.
35) 안영은, 위의 논문, 95쪽 참고.
36) 許霆·魯德俊, 위의 글 참고.

歌聲從音樂的身上脫落,
歸終剩下了音樂的身軀
化作一脈的青山默默.
<2. 什麼能從我們身上脫落>

노래 소리는 음악의 몸체에서 떨어져,
음악의 몸뚱이를 남기고
한 무리의 청산의 묵묵함이 된다.[37]

위의 작품에서는 삶에의 집착, 죽음과의 갈등으로부터 벗어나 나무나 매미처럼 삶과 죽음을 순환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시인이 바라보고 있는 주요 대상은 나무와 매미로서 스스로 마른 잎새를 떨구고, 또 껍질을 흙속에 남겨둔 채 죽음의 경계에서 비로소 생명의 본질에서 도달하여 영원한 생명을 획득하는 이들을 통해, 시인은 삶에서 죽음에 이르는 생명의 轉化 과정과 蛻變 과정을 보여준다.[38] 시인에게 있어 죽음이란 저 너머에 있는 불가지적(不可知的)인 어떤 것, 모호한 것, 때로는 두려운 추상이 아닌, 삶의 생생한 일부인 것이다. 작품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드러나는 시인의 인식을 산문 식으로 풀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시인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대 속에서 반성적 사고를 통해 가을 나무처럼 행위케 함으로써 삶에의 질박으로부터 벗어나기를 희망한다. 즉 막연한 자연에 특수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발견한 것이다. 가을 나무는 끝까지 남아 있던 나뭇잎과 꽃송이를 가을바람에 남겨 둔 채, 몸줄기를 쭉 펴고 죽음으로 들어간다. 생명의 집착을 버리기 위해 나뭇잎과 꽃송이를 떨어내고, 의식의 도약을 위해 나무줄기는 몸을 쭉 펴고, 죽음으로 들어가기 위해 나무는 찬 겨울로 가지를 뻗친다. 그리고 매미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허물을 벗어 흙 속에 떨쳐 두고, 또한 노래 소리는 악보만을 남겨 둔 채 청산의 묵묵함이 된다. 허물은 집착의 집을, 음악의 몸뚱이는 끝없이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과 덧없음의 상징으로 絶對를 담아낸다.[39] 음악의 몸뚱이에서 떨어져 나간 노래 소리는 청산의 묵묵함이 됨으로써 無言의 영원에 도달하게 되었고, 馮至는 바로 이런 점들을 통해서 민족의 위기로 야기된 초조감 내지는 불안감

37) ≪馮至詩選≫, 102-103쪽.
38) 王澤龍, <論馮至的"十四行集">, ≪中國現當代文學研究≫, 1996, 第1期 참고.
39) 진 쿠퍼/ 이윤기 옮김, ≪세계문화상징사전≫, 까치, 1996, 227쪽 참고.

을 극복하였으며, 동시에 자연과 인간과의 끝없는 호응을 시도하였다.

6. 끝내며

이상과 같이 馮至 시의 대표적인 시 작품을 대상으로, 생명추구와 존재의식에 대한 의미들이 어떠한 유형으로 재현되고 있으며, 그리고 그러한 내함들이 그의 시 전체에서 어떻게 서정성을 형성하였는지를 고찰해 보았다.

살펴본 바에 따르면, 초기 시에서는 주로 시인 자신의 체험 인식을 바탕으로, 존재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여러 시도를 했으며 특히 ≪어제의 노래 昨日的歌≫ (1927)와 ≪북쪽으로의 여행, 기타 北遊及其他≫ (1929) 등에서 '사랑'을 주제로 하여 내적 인식의 관계망을 형성해 나갔다. 하지만, 확장된 의미로서의 사회현실에 대한 인식은 아직은 개인적 직관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그가 본격적으로 존재인식과 생명의식을 작품 속에 반영한 것은, ≪十四行集≫에 이르러서이다. 총 27수에 달하는 시를 마치 그물처럼 촘촘히 엮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인식은 물론이거니와 사물, 그리고 넓게는 우주와의 호응을 시도한 것이다. 또한 현상의 유한성을 뛰어넘는 본질적 가치관을 제시함으로써 체험을 통한 그의 생명추구와 존재인식이 단지 현상계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궁극적으로 馮至는 당시 혼란한 시기에 있어, 영속적인 평화를 시를 통해서 구현하고 싶어했고 더불어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모든 존재의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朱自清이 40년대 馮至의 ≪十四行集≫을 "중년의 시[40]"라고 하였는데, 이는 매우 의미 있는 비유이다. 중년은 청년시기 가졌던 감정에 대한 방종이 다시는 있을 수 없음과 노년시기 지난 추억에 대한 탐닉 역시 있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중년은 또한 스스로를 극복하여 체험세계로 가서 인생을 사색한다

40) 馮金紅, 앞의 논문, 205쪽 참고.

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馮至의 40년대 창작시기는 바로 인간이 중년에 도달하여 열정과 냉정의 정신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昆明의 이름없는 산수들과 그가 독일유학시기 릴케로부터 얻은 체험적 예술이 서로 결합하여 이루어졌다. 그의 이러한 오랜 탐색작업은 ≪十四行集≫의 탄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고, 막연한 대상들을 소재로 하여 그 연장으로서 다시 완미한 결정을 이루게 하였다.

【參考文獻】

馮至, ≪馮至詩選≫, 成都 : 四川人民出版社, 1980.

王瑤, ≪中國新文學史稿≫, 上海文藝出版社, 1985.

陳耀東, <論馮至的詩>, ≪二十年代中國各流派詩人論≫,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

許霆・魯德俊, <「尋思, 尋形, 尋言」論馮至『十四行集』的追求>, ≪中國現當代文學研究≫, 1994년 第8期

馮金紅, <體驗的藝術>,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作家出版社, 1999. 3期.

汪劍釗, <在中國現代主義詩歌的轉折點上-馮至>, ≪中國現當代文學研究≫, 1995. 第11期.

陶鎔, <論馮至"十四行詩">,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1990, 第1期.

王澤龍, <論馮至的 "十四行集">, ≪中國現當代文學研究≫, 1996, 第1期.

王邵軍, <生命在沈思-馮至>, ≪中國現代作家傳記叢書≫, 花山文藝出版社, 1992.

解志熙, <生命的沈思與存在的決斷 — 論馮至的創作與存在主義關係>, ≪外國文學評論≫, 1990年 第3-4期.

김준오, ≪詩論≫, 삼지원, 1991.

김현, ≪시인을 찾아서≫, 문학과 지성사, 1991

심재상, ≪노장적 시각에서 본 보들레르의 시세계≫, 살림, 1995.

진 쿠퍼 / 이윤기 옮김, ≪세계문화상징사전≫, 까치, 1996.

안영은, ≪馮至 시 연구 : 철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韓國外國語大 碩士學位論文, 1998.

황미리, ≪馮至 시의 개성≫, 釜山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7.